



닥터 Q&A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주름살

주름살은 한 인간의 삶의 과정을 그려주고 각자 삶의 깊이를 보여준다.

아름다움의 기준을 젊고 팽팽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주름살은 각자의 마음을 정직하게 그려주어 각자의 개성(個性)과 연륜(年輪)에 따른 인간미를 나타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점차 주름살이 천대를 받게 되고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수난의 중심에는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

주름을 개성미, 완숙미의 상징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손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치관(價値觀)의 전도(顛倒)가 우려되는 점이다.

미인 만들기 일등공신, 보톡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소(毒素)가 그의 오명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전도된 가치관과 손을 맞잡았다. 한때는 <보툴리눔 독소>로 악명을 날리다가 지금은 주름을 펴서 미인을 만들고 각종 다양한 치료제로 등장한 <보톡스>가 그 주인공이다.

<보톡스> 혹은 <보툴리눔 독소>는 보툴리눔이란 식중독(食中毒)을 일으키는 세균에서 만들어지는 신경독소(botulinum neurotoxin)로 신경전달(傳達)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分泌)를 차단하여 근육의 수축을 막아 근육에 마비증세를 일으킨다고 한다.

주름살은 그 밑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여 생기므로 보톡스를 피하에 주입하여 피하의 근육을 마비시키면 수축작용이 없어져 약 6개월간 주름살이 펴진다고 한다.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보톡스에 대해 부



이 현 영
세영정형외과 원장

누구나 아름답게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보톡스는 미인이 만들어 준 일등공신이다. 그러나 지나친 남용과 부작용의 문제와 함께 인위적인 방법으로 없앤다는 점에서 개성보다 일률적인 미의 기준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삶의 깊이를 느끼게 하고 독특한 멋을 가진 주름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삶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주름살과 보톡스 이야기



정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면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과거에 독소였지만 지금은 면모를 일신(一新)하여 좀 잘나가기로서니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프냐? 고. 나도 보톡스가 고통을 주는 근육 강직이나 경련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격려하고 싶다. 그러나 정상적인 인간의 아름다운 주름살을 없애고 개인의 표정을 감추는 포커페이스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음식을 씹어 근육이 발달하여 생긴 사각(四角) 턱을 단지 미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마비시켜 훌쭉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선 뜻 동의할 수가 없다.

진정한 미의 의미, 독특한 멋 살리기

인생의 경험과 감정이 풍부할수록 얼굴의 주름살은 다양하고 멋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인자한 미소와 주름살은 손자와 손녀의 어린 가슴에 노년의 자연스런 아름다움과 삶의 깊이에 대한 무의식적인 존경심을 심어 준다. 점차 할머니의 고상한 주름살도, 어린 손자가 잡아당길 할아버지의 수염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88올림픽이나 2002월드컵의 세계적 축제 때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 중에 주름살 가득한 한 시골노인의 미소가 아직 기억에 남는다.

독특한 멋을 가진 주름살을 모두 펴서 평평하게 만들어 버리면, 개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미인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이 나쁜 것은 아니다. 개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률적이고 경직된 미의 기준을 더욱 선호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주름과 보톡스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보톡스에게 짝막한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이 글을 마친다.

보톡스 군에게 보내는 서한

보톡스 군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보톡스군 자네의 명성은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있네. 너무 바빠 이 하찮은 나의 글을 읽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자네를 잘 모르면서 이러한 공개서한을 보내는 것을 용서하게. 자네가 식중독 독소로 수많은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했다고 과거를 돌추어 자네를 곤경에 빠뜨릴 의사는 추호도 없네.

지금 자네가 시경, 안면 경련, 뇌성마비 등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있어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네. 먼저 축하하네. 그러나 문외한인 내가 보기엔 자네의 이름이 미용(美容)의 화신(化身)으로 과도하게 추켜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네. 이 점이 자네를 아끼는 나에게 일말의 불안감으로 다가오네.

잔디밭만 보면 축구장이나 골프장을 만들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얼굴의 주름살만 보면 다리미질해서 퍼려는 인간들에게 자네가 이용을 당하고 있어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다.

이번 기회가 자네의 오명을 벗을 좋은 찬스라 생각했는데, 혹시 길을 잘못 들어 그 찬스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노파심(老婆心)에서 하는 말이다.

자네와 손을 잡은 대부분의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네의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네에게 씌워진 과거의 오명을 벗겨 주리라 믿네. 그러나 자네를 이용하여 멋있는 주름살까지 마구잡이로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네가 아까운 돈과 개성미를 한꺼번에 날리지 말도록 단단히 타일러 돌려보내길 바라네. 그래야 자네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일세. 보톡스군 파이팅!

난 자넨 믿네. 안녕!